

2026년 국비 확보 주요 내용

‘빛의 혁명·부강한 광주’ 속도



강기정 광주지사가 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2026년 국비 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AI·모빌리티·반도체 예산 대거 반영

NPU센터 용역 6억·AI실증도시 5억

AI 사관학교 전액 반영…탄약고 50억

광주시가 내년 정부 예산에서 국비 3조9천497억원을 확보 하면서 인공지능(AI)·미래 모빌리티 등 주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예산 중 광주지역 56개 사업 예산 3조9천497억원이 반영됐다.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광주시 예산의 특징은 ‘빛의 혁명’과 ‘부강한 광주’ 도약의 원년을 여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먼저 민주주의 도시 광주를 계승하는 ‘빛의 혁명’ 예산으로는 빛의 혁명 발원지 5·18묘지 민중공원 조성 7억1천만원,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활용 4억4천만원 등을 확보했다.

광주시가 국비 확보의 최우선 순위로 뒀던 AI 분야는 국가 NPU 전용 컴퓨팅센터 광주 설립 용역비 6억원, 규제프리 광주 AI실증도시 실연 용역비 5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인제 양성의 요람이 될 AI 사관학교 사업비 105억원을 전액 국비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며 GIST(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영재학교 설립 관련 건축비와 운영비 32억원을 확보했다.

AX 실증밸리 조성(AI 2단계)은 정부예산 240억원에 이어 국회에서 56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또한 국가 AI데이터센터 고도화 192억원, 인공지능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 글로벌화 지원 10억원, 피지컬 AI 기반 휴머노이드 제조혁신센터 구축 10억원, AI 의료산업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생태계 구축 30억원, AI 헬스케어 실증 Complex 조성 24억5천만원,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 60억원, AI 반도체 실증 지원 220억원, AI 모빌리티 국가신도시 조성 기획용역비 10억원 등을 확보했다.

미래차 분야는 자율주행차량 실증·운행을 위한 교통체계 마련과 AI 기반 도시통합관리시스템 등 첨단 인프라 구축을 위한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 617억원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 순환경제 혁신 인프라 구축 2억원, 미래모빌리티 인지부품 기능안전 시험 지원 기반 구축 24억원, 미래차 편의·안전 기술고도화 기반 구축 6억7천만원, 미래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 12억원, 뿌리산업 공정고도화 지원센터 구축 5억원 등도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광주시가 그동안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온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광주관, 국회도서관 분관 등 3대 국가문화시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16억5천만원)도 모두 반영돼 유치 활동에 정진호가 커졌다.

사회 기반 조성 SOC 분야는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C) 확장 28억원,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1천672억원, 광주·강진 고속도로 688억원, 광주권 간선급행 버스체계(BRT) 건설 7억5천만원 등이 담겼다.

여기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 100억원(정부예산안 1천665억원), 마라도 탄약고 이전 35억원(정부예산안 15억원),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 64억4천만원(정부예산안 108억6천만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환경·복지 분야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20억2천만원, 광주 천 생태하천 조성 3억1천만원, 노후상수도 정비 51억6천만원, 국립 광주청소년디딤센터 건립 35억원 등이다.

강기정 시장은 “미래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 전역을 규제 프리 도시로 만들고 이를 통해 내년부터 헬스케어, 미래차 등 다양한 실증사업을 구체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전략산업 육성 대도약 발판



김영록 전남지사가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국비 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핵심 사업 확보 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에너지·AI 첨단 농수산 다수 포함

KTX 2단계·송정·순천 경전선 속도

김산업진흥원 설립 등 신규 사업도

전남도가 사상 처음으로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면서 전남 황금시대를 열 도대를 마련했다.

특히 미래 첨단전략산업, 차세대 에너지, 인공지능(AI) 첨단 농수산 분야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대거 확보하는 데 성공하면서 전남의 국가 성장 핵심축 도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42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권역별 경제 활성화를 이끌 신규사업도 103건, 3천330억원을 확보하며 전남의 성장동력을 꾸준히 이어가게 됐다.

사통팔달 교통망을 확충할 SOC 예산은 1조4천99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1조905억원 대비 29.2% 증가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비 5천700억원을 확보해 2026년 준공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광주 송정·순천 간 경전선 사업비 1천722억원,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4차로 확장 설계비 80억원, 목포역 노후역사 개량사업비 75억원 등도 반영됐다.

전남 핵심 전략 산업인 우주·에너지산업 관련 예산은 3천741억원이 포함됐다.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1천196억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250억원,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비 120억원, K-그리드 인제 창업 밸리 245억원,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 시험시설 구축 20억원, 나주 국립 에너지 전

문과학관 건립 설계비 5억원 등이다.

기업하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산업인프라 기반 조성 예산으로는 3천388억원을 확보했다. 세종산단 진입도로 개설 35억원,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 30억원, 철강·금속산업 인공지능 전환(AI) 지원센터 구축 28억원, 솔라시도 하수처리시설·공급용수 공급 설계비 20억원 등이다.

AI 고부가 산업 전환 등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4천836억원이 반영됐다. AI 첨단 농기계를 개발하고 국가 재정으로 데이터 기반 실증이 뒷받침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남형 농산업 AX(AI 전환)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비 5억원, 국가 농산업 AX 플랫폼 구축 200억원, 농업 AX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설계비 23억원, AI 기반 생육지원 데이터센터 구축 30억원 등이 포함됐다. 목포항을 서남권 핵심산업 지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포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7억원도 담겼다.

글로벌 남해안권 관광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예산으로는 663억원을 확보했다. 영광 백수해안관광경관 명소화 10억원, 담양 관광스테이 확충 5억원, 2026년 6월 방문의 해 추진 사업비 20억원,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 용역비 5억원이 반영됐다.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시범사업비 6억원, 전남도 5·18 추모 기념관 조성사업 설계비 3억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안전교육원 건립 설계비 21억원, 무안천 하류 구간 하천정비사업 설계비 2억원 등도 확보했다.

김영록 지사는 “AI 데이터센터, RE100 산단 조성, 민간 우주산업 선도사업, 전남형 농산업AX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비를 확보해 역대 최대인 국고 10조원 시대를 활짝 열었다”며 “미래 전남 황금시대를 힘차게 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기자

전액 국비 광주디지털훈련센터

장애인 직업훈련생 모집

▶ 훈련내용 : 디지털 일반과정

	디지털 리터러시 (컴활2급준비반)	컴퓨터를 활용한 실무오피스 교육
	디지털 영상편집	이미지 편집, 제작 및 영상 편집 기초교육

▶ 입학안내 및 지원사항

- ✓ **지원자격** : 18세 이상인 구직을 희망하는 등록 장애인
- ✓ **모집시기** : 연중 수시
- ✓ **전형방법** : 입학선발평가
- ✓ **훈련기간** : 1개월 ~ 6개월

▶ 훈련생 특전 :

훈련비 전액지원, 종식 제공, 교재 및 실습재료 제공,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구 분	취업성공패키지(해당자에 한함)	취업성공패키지 비대상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0,000원	-
참여수당	최대 월 284,000원	최대 월 200,000원
교통비	최대 월 50,000원	

※ 훈련수당 및 취업성공 수당은 대상자 자격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